

동북아국가들의 전자상거래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pporting System of E-Commerce in Northeast Asia Countries

이용근(Yong-Kun Lee)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창봉(Chang-Bong Kim)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김시중(Si-Jung Kim)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혁준(Hyuk-Jun Choi)

중앙대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임연구원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선행연구 고찰 | 참고문헌 |
| III. 동북아국가들의 전자상거래 현황 | Abstract |
| IV. 동북아국가들의 전자상거래 지원제도 | |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got rid of much restriction on time and space, inviting earlier knowledge based society. The growing e-commerce based on internet alters the existing way of management in business groups and countries to one based on e-business. Especially, neighboring Far-East Asia countries are on the way of increasing their interest and efforts on e-commerce. Also they continue to give support to e-commerce and explore the way to North-East Asia e-Hub, on the government level.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tried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ing system of e-commerce in 6 North-East Asia countries(South Korea, China, Japan, Taiwan, Hong Kong and Singapore), as a preliminary work for building the base of e-commerce and spurring the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e-commerce in North-East Asia region. I expect that this review would do the role of basic material for exploring and prospecting Korea's possibility as the North-East Asia e-Hub.

Key Words : Northeast Asia, e-Commerce, e-Hub, Supporting System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S3035)

I. 서론

지금 세계경제는 정보화와 지식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속에 글로벌리즘(globalization)의 보편화,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 중국의 부상 등 지난 세기와는 다른 경제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국가경제가 세계경제와 일체화 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경제사이클의 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EU, NAFTA의 양대 경제권으로 주도되던 세계경제가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으로 3대 성장축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IT산업의 생산 및 수출규모가 세계 5위내에 한·중·일 3국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어 세계 IT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생산규모면에서는 일본의 IT산업생산이 1,965억달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중국이 842억 달러(세계 3위), 한국이 639억달러(세계 4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과 한국이 각각 978억달러와 555억 달러치를 수출함으로써 세계 2위와 4위에 해당되어 수출 규모 면에서도 동북아 지역이 세계 IT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IT 발달에 따른 인터넷 활용이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의 교역규모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국제협력기구에서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규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지역주의 확산 및 FTA체결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의 상호 협력 및 경제교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 및 전략적 네트워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전자거래기반 구축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동북아 6개국(한국·중국·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지원 제도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대만과 싱가포르를 동북아 국가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고 IT 인프라 및 전자상거래 활용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며, 경제적으로 경쟁관계 있는 국가들을 포함시킴으로서 향후 동북아에서의 e-Hub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으며 FTA 타결에 따른 경제 협력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1) Reed Electronics Research, 2000.

II. 선행연구 고찰

1. 동북아 통상관련 선행연구

중국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도래를 말하는 논자들이 늘고 있다. 20세기 후반 동북아 국가들은 각국의 노력으로 고도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했으며 이제 동북아시아 경제는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경제대국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증대되면서 중국관련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동북아 관련논문들은 주로 경제공동체, 지역통합, FTA, 다자안보협력 등에 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통상관련 연구로서 정인교(2005)²⁾는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추진환경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의 적극적인 FTA체결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오용석(2003)³⁾은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의 과제와 전략에서 한국이 지리적·경제적으로 동북아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역내에서 생성되는 비즈니스 또는 경제적 이익을 흡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윤기관(2003)⁴⁾은 한중일 경제통합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3국의 경제통합의 상호의존성 정도와 경합성, 보완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중일 3국의 상호의존성 측면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합성 측면은 한중간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한일간에는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경합이 예상되며, 한·싱가포르와 한·인도네시아간에는 한국과의 산업에서 경합성보다는 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동북아 전자상거래 관련 선행연구

동북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지원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각국의 전자상거래 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윤광운(2002)⁵⁾은 동북아시아의 전자상거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동북아시아의 전자상거래 현황 분석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문제점 그리고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석범(2003)⁶⁾은 동북아 e-Hub화의 필요성과 국제사업의 현안문제 및 동북아 e-Hub화를 위한 전자권리등록기관과 전자문서등록저장소의 운영방향 모색하였다. 또한 e-Trade 국제사업의 동향과 동북아 e-Hub화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e-Trade 국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e-Hub화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

2) 정인교,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추진여건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제17권 제2호, 2005.

3) 오용석,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의 과제와 전략”, 동북아경제연구, 제15권 제3호, 2003.

4) 윤기관, “한·중·일 경제통합의 실현가능성 검토”, 동북아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제15권 제3호, 2003.

5) 윤광운, “동북아시아의 전자상거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7권 제1호, 2002.

6) 최석범, “동북아 e-hub화를 위한 전자권리등록기관과 전자문서등록저장소의 운영방향”,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8권 제1호, 2003.

원기 등(2004)⁷⁾은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전자무역공동체 형성의 기본방향과 전자무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분야별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3. 본 연구와의 비교

동북아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동북아 관련 논문들은 경제협력, 경제통합, FTA 등 경제적 측면을 다룬 연구가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한중일 각국의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을 다룬 연구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다자안보체제 구축 관련 연구 등이 있다.

〈표 1〉 기존연구와 본 연구의 주요내용 비교

| 구분 | 기존의 연구 | 본 연구의 주요내용 |
|-------|--|--|
| 전자상거래 | ·동북아 e-Hub화를 위한 전자거래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방향에 관한 연구 ·동북아지역의 전자상거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협력과 전자무역공동체에 대한 소수 논문이 나와 있을 뿐임 | 동북아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현황 및 지원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동북아 e-Hub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전자상거래 협력을 통한 동북아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Ⅲ. 동북아국가들의 전자상거래 현황

1. 한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오늘날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 프로세스 혁신과 매출확대 및 비용감소를 어떤 기능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IT를 활용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단순한 유행이나 거품이 아닌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업활동이며, 이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매출신장과 고객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의 IT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7) 문원기·이윤·윤창민,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7권 제2호, 2004.

1) 정보화 현황

우리나라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1994)’에서 최초의 범국가적인 정보화정책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1996)’으로 이어졌다가 1999년에 지식기반 사회로의 비전을 담은 Cyber Korea 21로 확대되었다. 90년대 중반부터 국가 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범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국가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선도하였다. [그림 1]은 기업 및 개인의 정보화 항목별 도입 시점과 2004년도의 정보화 변화 현황을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4년도 정보화 성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⁸⁾, 먼저 정보화 부문은 UN전자정부 수준평가에서 세계 191국 중 5위를 차지(싱가포르 8위, 일본 18위),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8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개시했으며, 인터넷 이용자 3천만명(04. 6) 돌파로 인터넷 이용 인구 비율은 세계 2위이고,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는 1,200만명에 육박하여 인구 백명당 가입자 수 23.3으로 세계 1위(홍콩 18.0,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IT 산업 부문은 생산액은 ‘03년(209조원) 대비 17.9%(241조원) 증가했으며, 수출은 ‘03년(576억불) 대비 31.6%(756억불)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수출의 대폭 증가(32%)에 따라 ‘03년(211억불) 대비 64%(346억불) 증가했다. 셋째, 인터넷 보안 부문은 사이버 공격근원지의 국가순위가 ‘02년 2위에서 ‘04년 9위로 개선되었으며, 스팸 메일 1인당 수신량은 ‘03년 1일 29.1통에서 ‘04년 1일 13.8통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그림 1] 기업 및 개인정보화의 주요 추진성과

| 항 목 | 도입 기준 | 2004년 | 증가율(%) |
|------------------|------------------|--------------|--------|
| PC 보급대수 | 693만대(97년) | 2,620만대 | 278 |
| 인터넷 이용자수 | 14만명(94년) | 3,158만명 | 22,457 |
|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 156만명(00.6) | 1,192만명 | 664 |
| 인터넷뱅킹등록고객수 | 12만명(99년) | 2,427만명 | 20,125 |
| 온라인주식거래 (비중) | 11조원(98년) (-) | 37조원(46.7%) | 236 |
| 전자상거래 규모 (비중) | 58조원(00년) (-) | 300조원(19.1%) | 417 |

자료 : 한국전산원·정보통신부, 「국가정보화 전략 및 성과 연구 2005년 연구 결과 보고서」, 2005.

2) 전자상거래 현황

2004년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총 규모는 314조 790억 원으로 2003년 235조 250억원 보다 약 29%

8) 한국전산원·정보통신부, 「국가정보화 전략 및 성과 연구 2005년 연구 결과 보고서」, 2005.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 <표 2>의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를 보면 B2B거래가 총거래 규모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B2G거래와 B2C거래는 다소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 구 분 | 전자상거래 총규모 | 기업간거래 (B2B) | 기업-정부간 거래(B2G) |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 기타 |
|------|--------------|----------------|-------------------|--------------------|-----|
| 2001 | 118,976 | 108,941 | 7,037 | 2,580 | 418 |
| 2002 | 177,810 | 155,707 | 16,632 | 5,043 | 427 |
| 2003 | 235,025 | 206,854 | 21,634 | 6,095 | 442 |
| 2004 | 314,079 | 279,399 | 27,349 | 6,443 | 888 |

자료 : 통계청, 2005. 6.

3) 전자무역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정부, 한국무역협회 및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을 중심으로 무역자동화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자무역 기반은 조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무역자동화사업으로 상역, 외환, 통관, 물류 등이 연결되는 무역자동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최근에는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보급, ebXML 표준 개발, 무역 부문의 e-마켓플레이스 등장과 e-무역상사 지정 등으로 중소기업의 전자무역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가 제고되었다. 또한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스코,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글로벌 SCM 체제 또는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상당한 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전자무역 인프라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02년에 무역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 대표로 구성된 민간 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10)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무역의 막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관련부처별 전자무역 추진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관련 부처별 전자무역 추진현황

| 구 분 | 주요 내용 |
|-------|---|
|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사업 추진(1998년 ~) ·지자체별 중소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

9) 정보통신부, 「2005 IT 시장백서」, 2005.
10) KEBIC e-비즈니스 정보센터, 대기업 전자무역 추진현황, 2003.

| | |
|-------|--|
| 문화관광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2002년) ·문화컨텐츠 해외 진출지원 |
| 산업자원부 | ·무역자동화법 제정(1991년)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정(1999년) ·전자무역확산시책 수립 및 추진(2001년~) ·사이버수출상담회 개최(2002년~) |
| 정보통신부 | ·전자서명법 제정(1999년) 및 전자인증 총괄 ·APEC 국제B2B상호연계시범사업(2002년~) ·국가물류정보체계혁신사업 추진(2003년~) |
| 건설교통부 | ·종합물류정보망 구축(1997년~) ·화물운송정보서비스 운영(1998년~) ·내륙·공항 물류거점시설 정보화(2003년~) |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정보망(PORT-MIS)(1992년~)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SP-IDC) 구축(2003년~) |
| 관세청 | ·수출입통관업무 정보화(1992년~) ·초일류세관 60대과제 추진(2003년~) |

자료 : 산업자원부,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 2003. 12.

2. 중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1) IT시장 규모

중국의 IT인프라는 정부의 정보화 정책 시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IT시장 규모는 2004년 1,151억불에서 2008년 1,585억불 규모로 2003년~2008년까지 연평균 9.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¹¹⁾

2004년 현재 아태 지역 및 세계 IT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5%, 4.7%이며, 2008년에는 각각 36.8%, 5.3%로 아태 지역 및 세계 IT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중국 IT 시장 규모 전망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CAGR 03~08 |
|-----|-------|--------|--------|--------|--------|--------|--------|---------------|
| 중 국 | 하드웨어 | 16,467 | 18,447 | 20,588 | 22,173 | 23,334 | 24,365 | 8.2% |
| | IT서비스 | 3,789 | 4,244 | 4,884 | 5,689 | 6,659 | 7,824 | 15.6% |
| | 소프트웨어 | 698 | 814 | 959 | 1,135 | 1,348 | 1,568 | 17.6% |

11) Gartner, 2004.

| | | | | | | | | |
|-------|------|-----------|-----------|-----------|-----------|-----------|-----------|------|
| | 통신 | 82,219 | 91,557 | 100,636 | 111,246 | 118,865 | 124,706 | 8.7% |
| | IT합계 | 103,174 | 115,062 | 127,067 | 140,244 | 150,206 | 158,463 | 9.0% |
| 한 국 | IT합계 | 46,385 | 50,809 | 53,971 | 57,631 | 58,905 | 59,419 | 5.1% |
| 아/태지역 | IT합계 | 285,895 | 323,977 | 353,117 | 387,145 | 411,763 | 430,843 | 8.5% |
| 전 세계 | IT합계 | 2,289,719 | 2,456,165 | 2,588,948 | 2,732,924 | 2,862,520 | 2,990,229 | 5.5% |

자료 : Gartner Dataquest, 2004. 10.

2)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중국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이지만, 중국정부는 시장개방과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유통방식을 통해 전국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공유될 수 있고, 또한 기업들의 자유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1 ~ 2002년의 방향시기, 2003년의 재생시기와 2004년의 전환시기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중국 소비자들은 이미 인터넷 무료서비스에서 유료 서비스로의 전환에 적응하고 있으며, 온라인 구매방식도 네티즌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02년 119억 5,6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274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3%나 증가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시장에서 1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중국의 전자상거래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백만달러, %)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전자상거래 규모 | 11,956 | 27,410 | 59,345 | 123,908 | 248,215 | 409,278 |
|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비중 | 15.1 | 17.6 | 21.3 | 26.0 | 32.1 | 36.7 |

자료 : IDC, 2003. 12.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에 중요한 추진역할이 되고 있으며, 또한 점차 많은 기업들이 GSP인증을 통해 기업정보화를 제고시키고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시장은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이 미비하고 세금 증빙이 없으며 온라인 지불이 안전하지 못하고 물류체계 효율이 낮은 것 등은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여 중국에서는 2005년을 전자상거래시장의 신용을 구축하는 한 해(誠信建設年)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 12월 21일, 중국전자상거래협회는 중국전자상거래신용연맹을 설립하였고, 2005년 1월 8일에 발표된 ‘국무원판공청의 전자상거래발전을 가속화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전자서명법’을 철저히 관철하고, 전자거래, 신

용관리, 안정인증, 온라인결제, 세금, 시장진입, 사적 비밀보호, 자문자원관리 등 법률법규문제를 연구하고 관련 법규 제정에 대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제출할 것을 핵심의제로 제출하였다.

3. 일본의 전자상거래 현황

1) IT인프라 현황

일본 정부의 'e-Japan' 전략에 따라 일본의 인터넷 및 이동통신 이용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ITU에 따르면 일본의 2003년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8,665만명으로 1998년 4,730만명에서 연평균 12.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67.96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호스트 수는 2001년 712만개에서 2003년말 현재 1,296만개로 급증하였으며, 인구 1만명당 약 1,015.68개의 호스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2년 기준으로 인구 100명당 38.22명이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²⁾

2) 전자상거래 현황 및 기업의 e-비즈니스화

일본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에 따르면 일본의 2003년 B2C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1조9,117억 엔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하였으며, B2B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77조4,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67.2% 증가하였다. 경기침체에 따른 정보화 투자 억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주도 품목인 자동차나, 전자정보 관련 기기가 더욱 확대되어 각각 약 28조 490억 엔, 24조 2,940억 엔으로 여전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보험서비스, 건설, 식품, 철비철금속원재료 등도 4배 이상의 확대를 보였는데, 이는 인터넷 기술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보 관련 기기 부문은 대기업 메이커가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Web-EDI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e-Commerce화의 새로운 가능성이 예상되고, 대기업 메이커에서는 공중 인터넷 망을 이용한 거래를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에도 e-Commerce화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있다.

〈표 6〉 일본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망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
| B2B 시장 | 274.1 | 406.0 | 564.5 | 789.3 |
| B2C 시장 | 20.5 | 25.7 | 31.3 | 37.9 |

자료 : IDC, 2003. 12.

12)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Update, ITU, 2004.

4. 홍콩의 전자상거래 현황

홍콩의 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은 홍콩의 정보인프라 구축 및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환경 구현에 목표를 두고 1998년 11월 수립된 Digital 21 전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전략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2001년 5월 초에 수정판이 발표되었고 이어 2004년 4월에는 재개정판인 2004 Digital 21 전략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 전략에서는 홍콩의 IT 발전과 개발을 위해 정부리더십 강화, 전자정부 프로그램 지속적인 추진,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제도적 개선, 기술개발, IT 산업 육성, 지식경제에 적합한 인재 양성, 정보 격차의 8개 중점추진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 7〉 홍콩 정보화 현황

(단위 : %)

| 구 분 | 2000 | 2003 |
|-----------------|------|------|
| ·가정의 PC 보급률 | 50 | 68 |
| ·가정의 인터넷 보급률 | 36 | 60 |
| ·가정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 18 | 50 |
| ·기업의 PC 보급률 | 52 | 55 |
| ·기업의 인터넷 보급률 | 37 | 48 |

자료 : 한국전산원, 「2005 e-비즈니스 백서」, 2005.

5. 대만의 정보화 현황

1) IT시장 규모

전 세계적으로 e-Generation 시대가 열리면서 대만에서도 미래의 발전을 위해 e-society(전자사회)를 목표로 정부는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핵심으로 하는 IT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대만의 IT시장 규모는 2004년 183.0억불에서 2008년 204.9억불 규모로 2003~2008년까지 연평균 3.8%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¹³⁾ 2004년 현재 아태 지역 및 세계 IT시장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 0.7%이며, 2008년에는 각각 4.8%, 0.7%로 아태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8 참조>>.

13) Gartner, 2004.

〈표 8〉 대만 IT시장 규모 전망

| 구 분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CAGR 03 ~ 08 |
|-----|-------|--------|--------|--------|--------|--------|--------|-----------------|
| 중 국 | 하드웨어 | 2,791 | 2,981 | 3,155 | 3,208 | 3,212 | 3,111 | 2.2% |
| | IT서비스 | 1,373 | 1,465 | 1,565 | 1,673 | 1,791 | 1,916 | 6.9% |
| | 소프트웨어 | 248 | 273 | 302 | 337 | 372 | 408 | 10.5% |
| | 통신 | 12,624 | 13,576 | 13,974 | 14,716 | 14,998 | 15,058 | 3.6% |
| | IT합계 | 17,036 | 18,295 | 18,998 | 19,933 | 20,373 | 20,493 | 3.8% |

자료 : Gartner Dataquest, 2004. 10.

2) 전자상거래 현황

전자상거래 측면으로 보면, 현재 대만의 기업 중에서 전자상거래를 응용 하고 있는 부문은 식품, 일용품, 약품, 전자산업, 방직업, 출판업, 여행업, 금융 서비스 및 수출입 무역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2000년까지 30개 업종의 34,225개의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원은 1999년 6월 산업자동화 및 전자화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7월부터 실시하였는데, 2001년 3월 현재 대만의 전자상거래 추진 효과는 다음과 같다.¹⁴⁾ 첫째, 전자화 지원으로는 1,800개의 IT 하드웨어 업체에 18개 전자화 시스템 도입, 1,700개의 부품업체에 6개 전자화 시스템 도입, 3,984개의 유통업체에 9개의 전자화 시스템 도입, 농산물 물류 및 판매에 관한 6개의 시범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둘째, 자동화 지원으로는 109개의 제조업체, 58개의 유통업체에 저장, 운송, 판매에 관한 6개의 자동화 시범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셋째, 금융 자동화 지원에서 보면 27개의 은행에서 금융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10,000여 개의 기업들이 산업자금유통 자동화를 실현하였다.

6. 싱가포르의 정보화 현황

싱가포르는 1980년대부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었고, 이를 고도화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싱가포르는 초기 NCB(National Computer Board)에서 정부전산화프로젝트(CSCP : Civil Service Computerization Programme)를 포함해 정보화 전반을 전담해 오다가 지난 1999년 TAS(Telecommunication Authority of Singapore)와 통합하면서 현재의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가 전자정부를 포함해 정보화 전반에 정책 및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¹⁵⁾ 싱가포르는 1980년 초기 국가정보화계획이었던 'The National Computerization Plan(1980-1985)'을 수립한 이래, 1986년에는 완전한 지식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IT 2000 Master

14) ICA, 대만 IT산업 현황 및 전망, 2003.

15) 산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e-비즈니스 백서」, 2005.

Plan(1992-1999)' 을 수립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세계 5대 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한다는 목표로 'Infocomm 21(2000-2003)'을 국가정보화 마스터플랜으로 발표했으며, 2003년에는 이에 대한 후속으로 'Connected Singapore' 를 발표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IT 전략과 함께 싱가포르의 전자정부 계획을 수립해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1980년에서 1999년까지는 정부전산화프로젝트(CSCP)를 추진해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IT 개척자가 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00년에는 제1차 전자정부행동계획(e-Government Action Plan 2000-2003)을 추진해 1,600여개 이상의 전자정부 서비스가 가능한 세계 최상위권의 전자정부를 이룩했다. 또한, 2003년 7월에는 2003 ~ 2006년까지 3년간 13억 싱가포르달러(7억 4,300만 달러)를 투입해 추진할 제2차 전자정부 행동계획(e-GAP : e-Government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특히 2006년까지 정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90%가 적어도 한번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들의 90%가 전자서비스에 만족하도록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IV. 동북아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지원 제도

1. 한국의 전자상거래 추진 동향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을 계기로 산업과 정보기술의 융합이 산업경쟁력의 중심요소로 대두되었으며, 기업의 정보기술(IT) 활용 방식도 종래의 '온라인상 전자상거래'로부터 기업의 내부 활동, 협력업체·고객과 협력 등 모든 기업활동의 IT화를 포함하는 'e-비즈니스'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선진 기업들은 e-비즈니스를 기업 경쟁력의 핵심전략으로 파악하고 e-비즈니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앞선 IT 인프라와 지속적인 정보통신 환경 개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e-비즈니스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정부도 그동안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00.2.16),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02.6.20) 등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e-비즈니스의 확산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 결과, ERP, SCM 등 기업의 IT화가 진전되고, 전자상거래 규모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등 e-비즈니스가 경제 전반에 확산 중에 있다.

1) 정부의 전자거래 지원 방안¹⁶⁾

(1)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전자거래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산업의 디지털 기술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16) 산업자원부 전자거래정책위원회 “2006년도 전자거래 촉진계획”, 2006.

전자문서 활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법령 개정(산자부)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해 28개 법률 56개 조항을 개정하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자무역촉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서명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 기반을 강화시킨다.

(2) 전자상거래 환경조성

전자거래에 대한 공인인증서 사용 확대, 결제대금예치제(Escrow) 도입 등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을 강화하고, 컴퓨터관련 발명심사기준 개정 등 전자상거래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전자어음 도입,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3%, 중소기업 7%), 전자외상매출채권제도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전자상거래의 글로벌화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 정부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기존 전통기업들의 수출 진흥 전략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적 흐름(물류)과 상적 흐름(상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정보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북아 전자무역 Hub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범아시아 전자상거래협력(Pan Asian e-Commerce Alliance : PAA)과 ASEM 전자무역네트워크구축사업, 한일 전자무역 허브(e-Trade Hub)사업 등의 전자무역 관련 국제협력사업이 우리나라의 주도 하에 체계적으로 달성되어야만 한국이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을 누르고 동북아 e-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전자무역허브(e-Trade Hub)사업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9>과 같다.

<표 9> 동북아 전자무역 Hub 관련사업 특징 비교

| 구분 | PAA사업 | ASEM전자무역사업 | 한일 전자무역 허브사업 |
|--------|---|--|--|
| 사업의 목적 | 범아시아지역의 무역자동화사업자들이 글로벌전자무역서비스의 사용, 경험과 노하우, 공동마케팅 등의 차원에서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 | ASEM내에서 전자무역을 실현하고 허브개념의 메시지 중계센터를 구축하여 무역 | 한일간 전자무역서비스를 구현하고 한일간 무역거래절차를 간소화하고 양국간 거래비용을 절감할 목적 |

| | | | |
|--------------|---|--|--|
| <p>주요 실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A 헌장(Charter)채택 ·운영위원회, 사무국, 명의회사 설립 ·협력추진을 위한 5개 WG운영 ·파이로트프로젝트를 위한 PAA 비즈니스 모델수립 ·인증서비스, 상호인증을 위한 CPA설립과 운영협의 ·e-B/L시스템운용을 위한 표준협약(Club Agreement) 마련 ·전자문서등록저장소(e-DRC)구축 합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KTFNET이 양국의 전자문서를 사용자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GCC(Global Message Connection Center)구축예정 ·표준관련협의 (UN/EDIFACT) ·통신방법협의(X.25, TCP/I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간 전자무역 허브체제구축 및 실증실험완료 ·한일 마켓플레이스간 기업/제품 DB상호검색 및 상호견적 및 주문/입찰까지 실증 실험완료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일본의 미쓰비시상사로부터 자동차 강판을 수입하는 무역플로우 실증실험완료(Invoice, P/L, B/L통지) ·5개 WG운영 |
| <p>문제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 저장모델에서중앙등록시스템이 바람직하나 분산서비스모델 선호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앙집중모델이 바람직하나 다중허브시스템이 추천 ·현재의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음 ·전자선화증권운영체제 미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에서의 뚜렷한 추진주체(전담기구)가 없음 ·한국과 독일의 사업성과의 확산에 의구심 ·망 연동에만 집중 ·전자선화증권운영체제 미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적인 비전하의 사업추진과 강력한 실행체계가 미흡 ·참가기업의 미흡 ·일본측(ECOM)의 소극적인 태도 ·일본에 유리한 기계, 전자, 전기부품에 사업추진 ·현재의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음 ·전자선화증권운영체제 미비 |

자료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글로벌 B2B 워킹그룹 보고서', 2003, 1.

2. 중국의 전자상거래 지원 제도 및 정책

1) 전자상거래 유관기구

중국의 급속한 IT발전은 중국정부가 신식산업부 신설 및 각종 유관 협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정보통신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유관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들은 <표 10>과 같다.

<표 10> 중국 전자상거래 유관 기구

| 기 관 명 | | 기 능 |
|-------|-------|---|
| 정부 기관 | 국가상무부 | -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방식에 대한 각종 법규, 정책, 법안, 법규의 제정과 실행 및 구체적 조치들을 국제관례에 맞게 새롭게 규범화하는 작업을 진행 |
| | 신식산업부 | - 국가정보산업의 전반적 발전 전략 및 각종 방침 및 정책 등에 관한 총체적 연구와 각종 전략을 입안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보제품 제조업·통신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며, 이와 관련된 법률 및 법규 초안을 마련, 행정규정을 공포하며, 행정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감독 - 국민경제와 사회복지 정보화를 추진 |
| | 과학기술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발전의 거시적 전략과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방침·정책·법규의 제정 및 연구 - 과학기술발전의 중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 - 햇불계획(하이테크기술확대계획)·星火계획(농촌과학기술확대계획)·성과보급계획 등 과학기술개발계획 지침의 제정 및 지도를 담당 |
| 정부산하기구 | 국가정보화 업무명도소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보안전관리 분야의 문제 조정 - 각 부문과 업종의 정보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관련 문제 조절 |
| | 국제전자상거래관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전 추세를 분석하여 중국 국제전자상거래 총체적 운용 계획과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 |
| 협회 | 중국국제전자상거래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급 전자상거래 총괄 서비스 기구 - 중국 각급 정부 및 많은 기업에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전자상거래 응용서비스 및 인터넷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
| | 중국전자상거래협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시키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업무의 조사와 연구진행 -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을 제정하여 정부에 건의 |
| | 중국인터넷협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업종 관련기업, 사업단위와 학술단체 단결 - 인터넷 사용자의 합법 권익 보호 |
| | 중국인터넷정보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메인등록관리, IP주소, AS번호 할당과 관리 - 네트워크 목록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인터넷조사와 서비스 |
| | 중국소프트웨어업종협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산업에 자문·시장조사연구투자서비스와 기타 중개서비스 제공 -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추천과 우수소프트웨어 브랜드 배양 |
| | 중국전자정부응용추진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전자정부의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 - 업종별 성공사례와 각종 보안프로그램, 바이러스 침투방지 |

자료 : 산업자원부, 중국전자상거래 현황 조사보고서, 2003. 6.

2)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¹⁷⁾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를 제정하기 위하여 중국의 주요 관련 부서들로 하여금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연구, 수정 및 제정하도록 지시하여 국무원, 우전부 등은 몇 가지 법률과 규정을 선포하였다. 이들 중 주요 규정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연계관리집행규정」, 「중국공용컴퓨터인터넷국제연계네트워크관리방법」, 「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연계망수출입정보관리방법」, 「중

17) 윤광운,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중재 제302호 대한상사중재원, 2001.

국인터넷도메인등록집행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컴퓨터정보시스템보안조례», 「컴퓨터정보네트워크 국제연합망보안관리방법」 등이 있고, 중국컴퓨터 정보네트워크의 초보적이고 신속한 발전에 관한 촉진과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법규와 규정은 인터넷 발전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웹상거래의 입법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입법의 절차상 전자상거래법의 출현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관리규정과 규범 등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의 신속한 발전과 수요에 적용하고 있다.

3) 전자상거래 추진 정책

중국의 인터넷 사업과 전자상거래는 1993년 중앙정부의 ‘골든 프로젝트’¹⁸⁾가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이해하는데 기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도 강조되어지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 제조업에서부터 농업, 서비스, 국제무역 및 교육에 이르는 모든 경제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표 11〉 중국의 골든 프로젝트

| 구 분 | 목 표 |
|----------------|---|
| ·Golden Bridge | - 1993년 3월에 제안됨 - 수 많은 전용 네트워크 및 컴퓨터를 가장 경제적, 합리적, 신속한 방식으로 연결시켜 금융·경제·시장·세무 등에 관한 국가관리를 강화 - 2002년 중국전역(180개 도시)에 확대될 예정 |
| ·Golden Card | - 전자지불시스템의 시험과 확대를 완성하고 국가 금융정보네트워크를 구축 - 전국 대, 중형 도시와 경제발달지역에서 금융 전자화를 기본적으로 실현 - 2003년까지 신용카드 인증절차와 여음교환 시스템 구축 |
| ·Golden Gate | - 1993년 6월에 제안됨 - 국가의 대외무역시스템 거시조정 및 관리, 세관·상업검사·세무·대외경제무역부·통계청·외환관리국·은행 및 수출입기업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교환 - 수출입에서의 관세탈세, 수출입 통계데이터가 실시간 정확히 처리되지 못하는 등 국제무역 발전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 |
| ·Golden Tax | - 1996년에 시작됨 - 납세의 전산화 수립 - 1998년 2차년도에서는 주차원에서 세금당국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

자료 : 산업자원부, 「중국전자상거래 현황 조사보고서」, 2003. 6.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법·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하고, 첨단산업을 육성시키

18) 金字工程(Golden Projects)은 골든브리지, 골든카드, 골든세관, 골든세금의 4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중앙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이다. 골든 프로젝트는 중앙정부가 시장경제에 수반되는 급속한 의사결정의 탈집중화를 통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이다.

기 위한 제10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IT산업규모를 2000년의 2배로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0년에는 정보기술 산업을 중국의 최고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02년 11월에 개최되었던 공산당 제16차 회의에서 중국은 2020년까지 이상적인 경제상황을 의미하는 小康社會 건설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위해 IT산업이 이를 실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자국내 정보화 육성을 위한 환경이 아직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해 발전속도 다른 국가들보다 늦었으나, 모든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시장규모 및 세계최고 수준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조만간 아시아를 넘어 세계 정보사회를 선도할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중국의 전자무역 기관

중국정부는 1993년 이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 관세국(Customs Bureau), 국가 외환관리국(China Foreign Exchange Administration Bureau), 국가통계국(China Statistical Bureau) 등과 중국의 상업은행, 일부 기업들간의 컴퓨터 네트워크화를 추진해 왔다. 중국 전자무역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국영기업인 중국국제상무중심(CIECC : China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Center)인데, CIECC는 중국기업이 국제무역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설립한 국영기업이다.¹⁹⁾

CIECC²⁰⁾는 중국의 경제개발 및 국제무역에서의 전자상거래 역할을 설계하고 중국내 전자거래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CIECC는 범아시아 전자상거래 협의체 PAA(Pan Asian e-Commerce Alliance)에 한국의 KINET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3. 일본의 전자상거래 지원 제도 및 정책

1) 전자상거래 관련기관 및 동향

일본은 1993년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인터넷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전자상거래 도입 및 추진은 통산성, 우정성, 대장성 및 법무성 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통산성과 우정성으로 통산성은 산하의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ECOM), 우정성은 사이버 비즈니스협의회를 통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반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ECOM(Electronic

19) 한국무역협회, 「사이버무역의 국제동향과 성공전략」, 2001.

20) CIECC의 주요 업무는 중국 대외무역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주요활동은 섬유쿼터관리, 온라인수출입허가 관리 및 검사, 전자적 입찰 시스템 운영,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적 원산지증명 시행, 전자검역관리 시스템 구축과 상품분류코드표준화.

COMmerce Council of Japan)은 일본 전자상거래실증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공동 플랫폼 기술개발을 위한 working group 활동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개별 중소기업의 지원보다는 공동의 이익 증대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행정지원과 각 기업 및 working group 사이의 운영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간의 상거래에 초점을 두고 약 350만개의 민간 기업과 5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참여하게 될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대장성의 경우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에 관한 간담회(96.7)’,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에 관한 환경정비를 위한 간담회(96.10)’를 설치하였으며, 법무성의 경우는 96년 7월 전자상거래법 관련 연구회를 발족시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환경정비 및 검토 작업을 추진하였다.

2) 주요 정보화 정책 추진

(1) e-Japan 전략

일본 정부는 95년 2월 미국의 국가정보인프라구축(NII)와 같은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을 향한 기본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 추진을 위해 2000년 7월에 IT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추진전략과 정책 등을 6회에 걸쳐 진행된 합동회의에서 검토·개정해왔다. 2000년 11월 ‘IT 기본전략’을 채택했으며, 2000년 제150회 국회에서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 형성기본법(IT기본법)을 제정하여 2001년 1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1년 1월 22일에 개최된 제1회 전략본부에서 IT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e-Japan 전략이 결정되고, 2001년 3월 29일 e-Japan 중점계획을 동년 6월 26일에 e-Japan 2002 프로그램을 각각 발표하였다<<표 12참조>>. 일본 정부는 정보통신기반구축 활성화를 위한 일반적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민간이 주도하게 함으로써 기업간 경쟁환경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법무성, 총무성, 공정위 및 경제산업성 등 각 정부부처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전자계약과 저작권 및 소비자 보호 등 국제적 환경에 부합하고 향후 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책임과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IT 정책 패키지 2005²¹⁾

일본 IT전략본부는 2005년 2월, ‘IT 정책 패키지 2005-세계 최첨단 IT 국가 실현을 향해’를 결정했다. ‘IT 정책 패키지 2005’의 주요 내용은 행정서비스, 의료, 교육·인재, 생활, 전자상거래, 정보보안 등 각 분야의 중점 IT 시책이다. 이에 따라 본 계획에서는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서 온라인 이용촉진 및 온라인 이용촉진의 가속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부처 공통시스템 정비 등을, 그리고 전자자치체 추진을 위해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서비스 온라인 촉진, 지방공공단체 업무·시스템의 표준화·공동화를 주요 시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21) 산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e-비즈니스 백서」, 2005.

<표 12> 정보화를 위한 일본정부의 전략 프로젝트 및 개요

| 프로젝트명 | 기 간 | 개 요 | | | |
|-------------------------------|-----------|---|-----------|-----------|-----------|
| e-Japan 전략 | 2001-2005 | - 01.01.22 제1회 IT전략본부에서 발표 - 5년 이내에 세계 최고의 IT국가를 목표로 함 | | | |
| e-Japan 중점계획 | 2001-2005 | - 01.03.29 e-Japan 전략을 구체화하여 발표 - e-Japan 전략목표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와 기간 등 주요시책 명시 [주요시책] ① 세계최고수준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형성 ② 교육정보화와 인재육성 강화 ③ 전자상거래촉진 ④ 행정정보화 ⑤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 | | |
| e-Japan 2002 프로그램 | 2002 | - 01. 06. 26 e-Japan 중점계획 명기된 사안의 실시 및 시책 발표 [중점시책] ① 고속·초고속 인터넷보급추진 ② 교육정보화 및 인재육성강화 ③ 네트워크 콘텐츠 충실화 ④ 전자정부·전자자치 추진 ⑤ 구체적 대처 강화 | | | |
| e-Japan 중점계획 실행을 통한 거시경제 증가추이 | | | | | |
| 연 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잠재성장률 | 0.9% | 1.0% | 0.6% | 0.5% | 0.5% |
| 생산유발건수 | 1.82억엔 | 1.82억엔 | 1.85억엔 | 1.86억엔 | 1.86억엔 |
| 생산유발금액 | 41,420억엔 | 82,100억엔 | 166,55억엔 | 262,120억엔 | 364,640억엔 |
| 고용창출 | 19만명 | 36만명 | 79만명 | 31만명 | 185만명 |
| 노동생산성향상률 | 0.3-1.0% | 1.3-2.0% | 0-2.7% | 2.4-3.1% | 2.8-3.5% |
| IT고용확대 | 40-43만명 | 78-83만명 | 114-121만명 | 149-157만명 | 182-192만명 |

자료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일본전자상거래 현황, 2003.

(3) u-Japan 전략

일본 총무성에서는 2004년 3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실현을 향한 정책 간담회’를 설치, 2010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비전을, 그리고 그 실현에 이바지 하는 ‘u-Japan 정책’을 같은 해 12월에 수립했다. u-Japan 정책의 목표는 ‘2010년 세계 최첨단 ICT 국가로서 선도한다’이다. 즉, IT 선구자로서 확고부동하게 세계 최첨단 수준 IT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인프라와 IT이익 활용의 균형이 잡힌 독창적·창조적인 일본 사회 모델을 선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세계에 공헌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4. 홍콩의 전자상거래 지원 제도 및 정책

1) 2004 Digital 21 정책²²⁾

홍콩은 Digital 21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지난 5년동안 쌓아온 정보화 추진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세계속의 홍콩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IT의 이점을 계속 살리는 것을 도전과제로 삼고 있다. 홍콩은 Digital 21 전략을 개선해 실질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는 2004년 4월 2004 Digital 21 전략을 발표했다. 본 전략에서는 홍콩의 IT 발전과 개발을 위한 로드맵이 8가지 영역(정부리더십, 전자정부 프로그램,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제도, 기술, IT 산업, 인적자원, 정보격차)에서 제시되고 있다. 각 영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리더십에서는 정부의 리더십과 적극성을 선도적인 디지털 국가 건설, 둘째, 전자정부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전자정부 프로그램과 e-비즈니스의 연계성, 셋째,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 영역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중요성 강조, 넷째, 제도영역에서는 이동통신, 방송, 인터넷 등의 통합과 기술발전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제도구현, 다섯째, 기술개발 영역에서는 IT를 채택하는 능력과 새로운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여섯째, IT 산업영역에서는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IT 산업 장려, 일곱째, 인적자원 영역에서는 통상분야와 산업분야의 수요에 맞는 우수한 IT 인적자원의 필요성 강조, 마지막으로 정보격차 영역에서는 IT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위한 ‘IT홍콩’ 캠페인을 제시하고 있다.

2) 전자무역 현황 및 지원 정책

홍콩은 지난 2003년 무역-물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운송 및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DTTN(Digital Trade & Transportation Network)를 구축하고 있다.

〈표 13〉 DTTN의 주요 서비스

| |
|---|
| · 메시지 전송 신뢰성 보장 - 국내, 중국, 글로벌 지역 |
| · 암호화 및 전자서명 검증 |
| · Data의 재활용 서비스 |
| - 전자메시지 검증 및 변환 서비스 |
| - 중소 무역업체를 위한 ASP 서비스 |
| - ASP사업자, 대기업, 물류정보 제공업체 등과의 직접 접속 지원 서비스 |
| - 통계 및 분석 리포트 서비스 |
| - 포털 서비스 : 메시지 관리, Single Sign On 기능 등 |

자료 : <http://blog.naver.com/ramse/30005476574>, 2006.

22) 산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상계서, 2005.

DTTN은 인터넷기반의 전자무역 및 운송체계로 홍콩-중국의 역내 및 글로벌 정보의 흐름과 서비스 통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립성, 안정성, 신뢰성 있는 e-Platform으로 구현된다. DTTN은 혁신적인 가치와 부가서비스 창출, 중소기업의 e-Business 활성화를 위한 촉매체, 홍콩의 e-Logistics Hub 및 홍콩의 경쟁력 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DTTN의 운영을 위해 DTTN Co.를 설립하고, Tradelink²³⁾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5. 대만의 전자상거래 지원 제도 및 정책

1) 정보화 정책

(1) 정보통신 주관부처

대만의 정보통신 주관부처는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교통부전신총국(DGT : Directorate General of Telecommunication), 국가정보통신 혁신위원회(NICI : National Information & Communication Initiative)의 3개 기관이 맡고 있으며 교통통신부는 대만 통신망 및 교통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부전신총국은 1943년 통신산업 규제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정보화사회촉진, 통신망 개발 등을 위해 활동 중이다. 또한 국가정보통신혁신위원회는 2001년 4월 IT산업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 정부서비스의 개선, 인터넷 사용 및 응용 촉진, 대만 IT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되었다.²⁴⁾

(2) 산업 정보화 정책

대만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개념 정립과 아이디어 발굴, 표준화, 기술 응용, 법-제도 정비 등을 서두르고 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음료, 전자, 반도체, 약품, 도서출판, 증권 등 30개 산업을 전자상거래 참여 대상 집중 지원 산업으로 정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기업에게 전자상거래 추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²⁵⁾

(3) e-Taiwan Program 2004

2002년 5월 대만 NICI는 대만 하이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 2008프로그램’의 일환으로 e-Taiwan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e-Taiwan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 발전을 위한 계획과 설계에 있었으며, 2004년 6월 개정된 ‘Revised e-Taiwan Program’을 추진하였다. e-Taiwan 프로그램의

23) Tradelink는 홍콩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무역 물류업체들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국영기관인 HKSAR(Hong Kong SAR Government)와 홍콩 민간 무역 물류업체들이 42% 대 58%의 지분을 갖는 합작회사 형태이다.

24)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IT현황 Handbook」, 2005.

25) 송민선,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화 정책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0. 5.

주요 목표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GDP의 15% 차지, 전자정부 세계 Top 5, e-정부 정책의 공공만족도 75% 도달과 600개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 전체 인구의 50% 온라인 접속 및 브로드밴드 가입자 6백만 달성 등으로 이루어졌다.

2) 중소기업의 정보화 계획

대만의 대기업과의 통합 연계를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를 살펴보면, 현재 대만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ADSL, e-mail 등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90%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웹사이트, 온라인 판매 및 구매 등에서는 10%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²⁶⁾ 특히, 중소기업은 e-learnig, CRM, ERP, KM (지식경영), ASP, SCM 등의 활용도에 있어 10% 이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기업에 비해 상당 부분 뒤떨어진 상황이다. 산업 내 e-비즈니스의 비전은 e-비즈니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대만을 글로벌한 부가가치형 생산 제조 및 서비스 센터로 변모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불완전한 e-비즈니스 인프라, 대만 제조업에 대한 국제적 경쟁심화, 국내 e-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자들의 불충분한 역량 등을 개선시키고자 1999년에 ABCDE계획²⁷⁾을 도입하였다.

6.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지원제도 및 정책

1) 정보화 정책

싱가포르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와 높은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사용 그리고 기업들의 e-비즈니스 수행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재정 환경과 안전한 투자처로서의 명성으로 인해 아시아지역의 e-비즈니스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²⁸⁾.

싱가포르는 정보화와 관련된 ICT 정책을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으며, 1980년도의 National Computerization Plan, 86년도의 National IT Plan, 92년도의 IT2000, 그리고 최근의 InfoComm21²⁹⁾과 Connected Singapore에 이르기까지 정책적인 프레임은 수정 발표하면서 추진해오고 있다. 보조적인 정책 모토로서 1996년에는 Singapore One³⁰⁾, 그리고 최근에는 E-Citizen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정책들을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다.

26) ACI-FIND, 2003. 10

27) ABCDE 계획중 plan A는 국제구매자와 대만 내 IT제조업체 기업들 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계획이며, plan B는 대만 내 IT 제조업체 기업들과 대만 중소기업들 간의 연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자동화된 견적, 품질경영, 공급업자관리 등과의 목적으로 가지고 대만 내 중소기업 정보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plan C는 은행과 대만 내 제조업체 기업들 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계획이며, plan D는 대만 내 제조업체 기업들과 전단체계 역할을 수행하는 수송업체들간의 연계를 말한다. 또한 plan E는 대만 내 제조업체 기업들과 고객 및 파트너들과의 연계를 말한다.

28)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해외주요국가의 e-비즈니스 현황”, 2005. 1

29) 통신시장 개방과 함께 싱가포르를 선진 정보통신 허브로 육성하는 계획.

30) 1998년 도입된 싱가포르 One 사업은 싱가포르 국가컴퓨터청(NCB)와 싱가포르 통신청(TAS) 주관하에 싱가포르 전역을 광대역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하는 전략.

2000년 10월에는 싱가포르 생산표준위원회와 IDA는 e-비즈니스를 전 산업부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e-비즈니스산업개발계획(The e-Business Industry Development Scheme : eBIDS)을 위한 기금조성과 지방기업의 전자상거래 육성 프로그램등과 같은 프로젝트에 3천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하여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들에게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계될 수 있고, 국내 비즈니스들의 정보통신기술활용에 대한 잠재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견실한 e-비즈니스 인프라 건설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위해 IDA는 지역기반의 서비스 제공과 m-Commerce 활성화 및 무선 경쟁력 강화를 목표를 실현하고, 싱가포르를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통합 인프라 기반 국가로 만들기 위해 'Wired with Wireless'라는 프로그램을 2002년 10월부터 시작하였다.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실행계획으로는 2000년 8월1일 민간부문의 닷컴(Dot.Com)화를 지원하고, 2003년까지 싱가포르에서 행해진 비즈니스의 50%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싱가포르를 아시아 지역의 전자상거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첫째, 정부는 산업계와 PKI포럼 구성 및 운영을 협의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보험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금융권 및 은행권에 권장한다. 셋째, 정부가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한 신용마크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마크 제도를 운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500개 국내기업의 전자상거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900만 싱가포르 달러를 투입하는 국내기업 전자상거래 프로그램(LECP : Local Enterprise E-Commerce Programme)의 후속조치로 2000년 12월 전자상거래 도입기업의 확대 및 국내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의 촉진3)을 목표로 3,000만 싱가포르 달러의 예산으로 e-Business 산업발전계획을 도입한다. 또한 핵심 서비스경제 분야(무역·외환, 제조·물류, 재정·금융 등 3개 분야에 특화)의 전자상거래 기반을 강화하여 e-logistics, e-trading, e-manufacturing, e-finance의 허브를 추구한다. 전자교육 표준기술위원회(E-Learning Standard Technical Committee)를 설치하여 포괄적인 전자교육(e-learning) 인프라를 구축한다. 싱가포르가 세계적 'Dot.Com'의 허브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싱가포르' 브랜드 전략을 추진함.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세계수준의 전자상거래 수행 기업을 유치하는 외국인투자촉진노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싱가포르 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장려한다.

2) 전자무역 지원 제도

싱가포르의 경우 1986년 통산부 산하 무역개발공사의 TradeNet 추진계획에 기반하여 무역자동화가 추진되었으며, 1988년 3월 국가전산원(NCB) 인력을 축으로 하여 TradeNet 전담사업자로 SNS(Singapore Network Service)가 발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전자무역 지원활동은 전자무역 활동의 여러 단계 중에서 구체적으로 공공적 성격

이 강한 부분만을 직접 수행하는데 한정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정형화된 부분에서 무역정보 및 무역거래알선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전자무역의 실제적인 구현은 국제적 e-마켓플레이스를 전문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유치 및 싱가포르 기업의 육성을 파격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e-마켓플레이스 업체가 싱가포르에 소재할 경우 전자무역 전반에 걸쳐 미칠 파급효과를 정부가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공공의 무역정보 및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의 구축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거래라는 사업모델을 갖고 활동하는 기업을 싱가포르에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V. 결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축소하여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기존의 기업과 국가의 경영방식을 e-비즈니스화로 변모시키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지역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네트워크 역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아 국가들의 IT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e-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과 역할 또한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현황 및 지원 제도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전자거래기반을 구축하고 e-Hub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동북아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지원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 정책의 주요 특징은 한국은 IT 인프라 및 투자에 있어서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예산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지리적 여건상 인프라 구축에 한계를 나타냈으며 경제특구 몇몇 지역에 정보화가 편중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일본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인적자원을 강조했으며, 홍콩은 국제운송 및 물류 부문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대만은 생활속에 정보화를 강조하였고, 싱가포르는 정부주도의 신속한 정책시행과 명확한 목표설정을 하고 인적자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자상거래 정책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은 산자부를 중심으로 무역자동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법규정비, 인프라 확충이 일찍 시작되었고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중국은 국무원과 신식사업부를 중심으로 골든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 상거래, 법규정비 등

31) 이성봉·심상렬, "미국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지원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1호, 2002.

을 수행했으며, 일본은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를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홍콩은 무역개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자거래기반구축과 법규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 역시 경제부 기술처를 중심으로 e-Industry and e-Society 프로그램을 수행중에 있다. 싱가포르 역시 TDB(무역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 산업발전구조(2000), 지방기업의 전자상거래 육성(2000)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지원제도는 각국의 경제상황, 시장상황, 산업측면, 기술측면이 각기 차이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동북아에서 e-Hub가 되기 위해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법규정비, 연구개발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가 e-Hub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지 속단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기업은 중북투자 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최소화 시키고 경쟁국가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여 단기처 방이 아닌 장기적 플랜을 통해 동북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먼저, 각 국가간 전자상거래 지원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동북아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제도와 정책들은 IT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 에 주로 치우쳐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폭 넓어 접근하기 가 쉽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거래 형태 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의미는 동북아 6개국, 즉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국가들의 IT와 전자상거 래 관련 현황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동북아 e-허브의 가능성을 전망해보 고 모색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고정식, “동북아 3국의 무역통계 비교”,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제17권 제1호, 2005.
- 김기홍, “한일간의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KIET산업경제』, 2001.
- 김수용, “동북아시아 역내무역의 성장 : 실적과 전망”, 서강경제논집,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연 구소, 제27권 제2호, 1998.
- 류화열, “동북아 경제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문원기·이윤·윤창인,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방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7권 제2호, 2004.
- 박변순,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01.
- 박희중·정미혜, “동북아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28권 제2호, 2003.

- 배광선, “WTO체제하에서의 산업협력의 활용 :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법무부, 제36호, 2000.
- 산업연구원, “중국의 e-비즈니스 확산에 대응한 진출전략”, 『e-KIET산업경제정보』, 2005.
- 산업연구원, “우리나라 산업의 정보화 추이와 성과”, 2002.
- 산자부, 「중국전자상거래 현황 조사보고서」, 2003.
- 산자부, 「2006년 전자거래 촉진 계획」, 2006.
- 산자부·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e-비즈니스 백서」, 2005.
- 손병해, “한중일 산업내 무역의 진전과 동북아 경제통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송민선,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화 정책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0.
- 안충영, “동북아 경제통합의 비전과 FTA추진”, 외교, 한국외교협회, 제69호, 2004.
- 오용석,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의 과제와 전략”, 동북아경제연구, 제15권 제3호, 2003.
- 유병규·박영금, “동북아 3국의 e-biz 경쟁력 평가”, 현대경제연구원, 2003.
- 윤광운, “동북아지역의 전자상거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7권 제1호, 2002.
- 윤광운,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계법규와 동북아 협력”, 동북아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6권, 2001.
- 윤광운,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중재 제302호 대한상사중재원, 2001.
- 윤기관, “한·중·일 경제통합의 실현가능성 검토”, 동북아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제15권 제3호, 2003.
- 이제인, “동북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토지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 제6권 제5호, 1995.
- 일본 총무성, 「정보산업백서」, 2004.
- 정보통신부, “IT 839 전략 추진”, 2004.
- 정보통신부, 「2005 IT 시장백서」, 200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본 인터넷 주도권 확보 전략, 2002.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일본정보통신 정책 동향, 2002.
- 정인교,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추진여건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제17권 제2호, 2005.
- 정희식, “동북아 IT허브 가능성 분석”, 현대경제연구원, 2003.
- 중소기업진흥공단, “외국의 IT산업과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제도”, 2002.
- 최석범 외 3인, “e-Trade국제사업의 동향과 동북아 e-Hub화 전략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5.
- 최석범, “동북아 e-hub화를 위한 전자권리등록기관과 전자문서등록저장소의 운영방안”,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8권 제1호, 2003.

- 최석범, “동북아시아 전자상거래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 30권 제2호, 2005.
- 최용록, “동북아시아의 전자무역공동체 추진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3권 제2호, 국제 e-비즈니스 학회, 2002.
- 한국무역협회, 「사이버무역 국제동향과 성공전략」, 2001.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동남아 주요국 IT시장현황 및 진출전략”, 2001.
-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 법제 및 국제규범 논의동향 분석”, 2000.
- _____, 「국가별 e-비즈니스 발전동향 조사」, 2004.
- _____, “OECD 회원국의 e-비즈니스 현황과 정부정책”, 2004.
- _____, “국가정보화 전략 및 성과 연구”, 2005.
- _____, “국내 분야별 정보화 동향”, 2005.
- _____, “인터넷 비즈니스 산업 기반 연구 및 통계정비”, 2005.
- _____, 「인터넷 백서」, 2005.
- _____, 「e-비즈니스 백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2002.
- 한국전산원·정통부, “국가정보화 전략 및 성과 연구”, 2005.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무역(e-트레이드)확산 전략 회의’, 2002.
- 한국전자부품연구원, “동북아 IT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천전략 연구”, 2002.
-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IT현황 Handbook」, 2005.
- 하의유·이동기,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업환경 및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제3권 제2호, 국제 e-비즈니스 학회, 2002.
- 허용석, “동북아 전자상거래 협력현황 및 향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허용석, “한국, 동북아 전자상거래에서 e-hub화 전략 성과 가시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현대경제연구원, “e-비즈니스 국가경쟁력”, 2002.
- Anderson Consulting and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2000.
-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MII, 2000), China E-commerce 2000, 24 issues.
- Reed Electronics Research, 2000.
-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Update, ITU, 2004.